

이준원 . 손연경 . 동인 . 서인 선교사 선교편지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Vol.01 2021.4.11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원 선교사입니다.

먼저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캄보디아에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 생각해보면 어떻게 선교파송을 받아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는지 꿈만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첫번째 편지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편지중에서..."

14일 격리 해제되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캄보디아는 가로등 불빛들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리자마자 다가오는 습하고 후끈한 공기가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코로나 1차 검사를 마치고 나라에서 지정되어진 호텔로 이동 하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뜨문뜨문 보이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저녁 풍경은 "드디어 도착했구나" 라는 기대와 설렘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첫날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문제로 실망하고 짜증을 낼때도 감사했던 것은 저의 입은 선교하기에 딱 맞는 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어떤 음식도 입에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14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2차 코로나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던 캄보디아 말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어곤 프라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14일 격리를 마치고 밤11시...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라고는 큰 이민가방 2개와 사랑하는 주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케케한 나무장작타는 냄새도 무자비하게 덤벼드는 모기들도 나를 반겼지만 어디를 가야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할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음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13:22)

하나님께서서는 기가막히는 타이밍으로 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인아저씨도 좋으시고, 언어 공부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와 장소, 여건 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을 꺼리는 현실속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외국인거주등록을 주인 아저씨께서 직접 동사무소 동장님을 만나주셔서 순적하게 잘 등록도 마치게 하였고, 비자 연장도 제가 계획한 곳보다 더 확실한 분을 만나게 하셔서 진행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같은 이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손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머물고 있는 장막



봉제공장 직원들과 함께 먹었던 점심식사



매일 찾아가서 언어 실습하는 집 앞 시장

찬물에 설탕은 저어야 한다...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 역시 코로나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금을 실시하면서 코로나확산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학교, 학원, 교육기관은 문을 닫게 되었고, 물건을 파는 상점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직원이 가져다 주는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여서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언어를 배워야 할 "프놈펜 왕립대학 IFL"은 문을 닫게 되었고, "KLC 외국어학원" 역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외국인을 꺼려하는 상황이라 현지인 튜터를 만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는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찬물에 설탕은 저어야지..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왕립대학교를 찾아가보니 교문이 닫혀 있었고, KLC학원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마침 학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나라에서 지침이 있어서 문을 닫았고, 그동안 수업을 듣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지 2일이 되었다고 원한다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겠다고" 하셔서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지인 튜터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자주 만날 수 없으니 가끔 만나고 그대신 숙제를 내어주면 그 숙제를 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뽀아곤)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당신은 특별 한 것 같다" 고 하시며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닫혔던 문 마저 열어주시고 특별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민33:1-37)



닫힌 문을 두드렸던 캄보디아 언어 학원



특별지도해 주시는 뽀야꾼 튜터선생님



매일 발이 되어주는 중고 오토바이

오직 주만 바라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매일 아침6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봉제공장으로 가는 행렬들을 봅니다. 캄보디아 각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돈을 벌고자 이곳까지 자처해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번 돈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자신들은 쪽방같이 좁은 방에서 무더위를 참아가며 지내는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었 습니다. 저도 이들을 따라 그 행렬에 따라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돈을 바라고 왔을 지라도 저들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울수 없는 영원한 것이 되게 하소서..."



"8시 이후 통금 시간 도로 상황"



기도제목....

1. 덥고 습한 날씨가운데 몸과 마음이 이곳 토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2. 4월 14부터 (졸츠남-새해로 들어가다) 설날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생명 냄새 진동하는 이곳 될 수 있도록.
3. 언어훈련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지역연구, 지역탐방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4.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5. 한국도, 캄보디아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확산을 막아주시고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